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을 바로잡으신 예수님(2)

- 읽을 말씀 마 5:43-48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을 어떻게 바로잡으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비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④ 원수를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라!” 는 제목의 설교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롬 5:5) 어떤 종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입니다. ...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롬 5:5)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인식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을 뜻합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존 스토틀는 이 구절에 대해 「로마서 강해」에서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그리고 새롭게 알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구절의 뜻을 정확히 이해한 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어렵게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노력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며(갈 5:22), 결국 성령이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니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처음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 성령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원수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행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바른 답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것을 알아도 여전히 원수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로 원수를 사랑하는 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몇 가지 비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불가능하다는 생각부터 버려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은 ‘불가능’ 을 떠오르게 하지만 이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필립 안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에서 “어떻게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한 일만 미워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내가 평생 그렇게 해 온 대상이 한 사람 있음을 오랜 후에야 알았다. 바로 나였다. 내 비겁함과 속임수와 탐욕은 지독히 미워했어도 나 자신은 계속 사랑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나의 최고의 원수는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자기를 위협하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악과 실수와 죄를 범함에도 죽을 때까지 자기를 사랑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녀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 예수님의 명령을 정확히 이해하라!

예수님은 원수를 좋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고 하셨습니다(6:27-28). 모두 어떤 행동과 관계가 있는 명령들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에 대해 로이드 존즈는 「산상설교집 상」에서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타고난 천성에 더 가깝습니다. ...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랑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좋아하는 듯이 대우하고 있는 한 그것으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비록 우리가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하듯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결단하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본래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짓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은 비결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창 39:9). 그런데 원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면 쉽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쉽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원수 사랑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면 원수 사랑이 훨씬 쉬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후 어느 날 스테반의 순교에 대한 성경구절이 떠올랐습니다(행 7:54-60). 스테반은 순교할 때 원수들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 주목하고 스테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본문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로이드 존즈가 그것을 “첫 절(45절)의 의미는 필연코, 우리는 ... 그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바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 하나님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었으며 이 외의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이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원리가 됩니다.”라고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와 그들의 악을 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수 사랑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㉔ 자신이 사랑의 빛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악한 행실과 세상과 벗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원수였으며(롬 8:7, 골 1:21, 약 4:4), 하나님의 원수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롬 5:10). 이로 인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빛진 자가 되었습니다. 원수 사랑은 대단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알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만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수보다 의롭고 그는 심히 악하다고만 생각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크고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사랑하고, 오래 참으시고, 구원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가 바로 사랑에 빛진 자요 채무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능히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 나눔과 적용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 사랑을 가능케 하는 비결들 중 나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던 것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나누어 봅시다.